

## 직업환경의학의 도전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환경건강연구실장,  
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장  
김 규 상

산업보건 분야는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노동의 환경이나 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직업병으로 진폐증, 소음성 난청,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납 중독, 이황화탄소 중독, 벤젠에 의한 백혈병,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독성 간염), 노말렉산 중독(다발성 말초신경염) 등 협의의 전통적인 질병과 급·만성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부터 코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의 영역까지 작업관련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로서 사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 수면장애, 위장관질환, 우울증, 암 등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건강진단으로 제도화되어 올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실시하고 있다.

교대근무 형태로서 주로 수행되는 야간작업만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감정노동까지 작업조건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제 감정노동은 정서적 소진과 함께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적 건강영향)에서부터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의 이환)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예방지침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는 대부분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를 맺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규율된다. 그런데 최근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트타임,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특수형태 근로 등 사업장내 근로 종사자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 자유계약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특수고용형태(전통적인 고용형태와는 달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위임 내지 도급 등 자유노무계약에 의거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독립근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급의 형태로 보수를 제공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인으로서 속성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적인 속성도 동시에 가짐;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덤프트럭 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있음)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발전,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활용과 같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빠르게 확산되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과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일반해고의 행정지침으로 만들려 하는 게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격차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급속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산업 발달에 따른 각종 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 물, 대기를 통한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요인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석면 채굴광산 지역 주민의 석면피해, 태안 기름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 원전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등 - 제한된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미치는 시민들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보건 분야에서 직업환경의학 또한 과거 30년여 기간 동안 제도적, 학문적, 기술적, 임상의학적인 측면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현 시점에서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달라진 사회환경에 따른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많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인력이 제도권 내에서 작업장 내의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 물리/화학적 유해인자 위주의 건강관리(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를 담당하며, 이로 인한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로 국한되어 중

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직업성 질환의 판정,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및 사 후관리를 시행하고, 직업인의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 직업병의 진단 등 임상의학 외래 영 역(직업성 의심 질환의 임상 각과와 연계된 확진, 치료, 재활 및 장애 평가체계 구축,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기반 마련)과 원내 근로자 보건관리(산업보건의로서 원내 전임 보건관리자와 더 붙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정기적인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와 원내 감염성 질환관리 및 환자 에 의한 폭력 예방대책 등)만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환경건강 연구실과 연계된 직업성/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환경노출 위험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사업(서울시 아토피 안심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직업환경의학 분야 장(field)에서의 경험은 단지 정기적인 년 1회의 학회 발표 자리로 끝나지 않고 공유되어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관련분야(산업보건 - 직업(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환경보건<sup>1)</sup> - 환경의학, 대기환경, 환경독성, 위험성 평가)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참여 확대(협업, 공동 학 술제 추진 등), 관련 임상의학 분야와의 수련체계 및 공동연구 모색(‘대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기존 산업보건 분야의 갇힌 틀을 넘어 학회/정부(고용노동부/환경부)/공공기관(연구원 등), 대학(수련기관)/ 한특협/특수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검진 의사 간의 열린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 환경의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더 세부적인 전문가 인력 풀 구성과 활용, 전문지식과 실무적인 응 용을 위한 상시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제공과 더불어 직업환경의학의 임상의학 토대를 어떻 게 만들고 더 발전(‘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근로자건강센터’, ‘환경보건센터’)시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 하고 그러한 중추적(Hub) 기능을 학회에 기대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산업보건 분야는 노동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만 큼 각 장(field)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만이 고립된 섬처럼 다람쥐 쳇바퀴 처 럼 동어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

주석

1. 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건강권으로서 환경의학이 지역사회에서 예방의학(환경보건), 지역사회의학, 환경역학 등과 관련하여 임상의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기반 모색이 필요